

“메말라가는 월대천, 원래 모습 되돌려야”

월대천 보존대책위 출범 “장애인스포츠허브 터파기 공사때 지하수 처리 부실” 도에 지하수 유입책 촉구

제주시 외도동 월대천이 점점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 변하는 원인을 두고 지역주민과 제주도 행정 당국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외도동 주민들은 지난 20일 월대천 인근 월대교 앞에서 ‘월대천 보존대책위원회’ 출범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어 월대천 지하수 유입량 확보를 위해 과거 제주도정이 내걸었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대천 보존대책위원회는 외도동 인근 10곳 마을회장과 11개 자생단체장 등 30명 수준으로 꾸려졌다. 주민들은 2015년 월대천 상류지역



월대천 보존대책위원회가 20일 제주시 외도동 월대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인 제주시 외도1동에서 진행된 제주 장애인스포츠허브 건립 공사 때문에 월대천이 점점 메말라 간다고 주장한다.

2015년 6월 부지 터파기 작업 도중 하루 4000~4500t에 이르는 지하수가 쏟아지자 제주도가 이를 막으

려 콘크리트 차수벽을 설치했는데, 이 때문에 월대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하수가 다른 곳으로 흘러 월대천이 건천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공사 초기 문제를 제기하자 제주도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하루 4000~4500t에 이르는 지하수가 월대천에 유입될 수 있도록 약속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키고 않다가 약속 이행을 강력히 요구할 목적으로 대책위를 꾸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제주도는 당시 그런 약속을 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며, 월대천이 말라가는 원인도 강수량 변화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5년 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월대천 상류에 있는 상수원의 취수량을 1만t에서 5000t으로 줄여 나머지 5000t을 월대천에 방류할 것과 장기적으로 상수원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월대천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이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주 장애인스포츠허브 개장을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부상 중국인선원 긴급이송

차귀도 해상에 있던 선박에서 작업 중 부상을 입은 중국인 선원이 해경에 의해 긴급이송됐다.

2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 17분쯤 차귀도 남서쪽 약 80km 해상에서 파나마 상선 A호(약 23만t급)에 있던 중국인 선원 B(33)씨가 기관실 작업 중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급파, 오후 8시 20분쯤 현장에 도착해 B씨를 긴급 이송하고 오후 10시 45분쯤 화순항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강해기자



물방울속에 진달래꽃이... 비가 내린 22일 제주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진달래꽃에 맺힌 물방울속에 진달래꽃이 보인다. 강희만기자

한림농협 노사 ‘직장내 괴롭힘’ 공방

노조 “부당한 노동행위 자행” 농협 “노조 주장 사실과 달라”

제주지역 농·축협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협동조합 노조)는 한림농협측이 부당 노동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협동조합 노조는 지난 20일 정부 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림농협 영농자재판매장

에서 휴일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의 조합장으로 바뀐 뒤부터는 점심시간에도 영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게시간을 보장 받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이런 행위를) 고소하자 조합장이 당사자들을 불러 고소취하를 종용하거나 앞으로 농협 생활이 힘들 것이라는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협동조합 노조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휴일대체근무를 실시하고, 이 근무 조건에 동

의하지 않는 노조 임원을 지시 불이행으로 부당하게 징계했다”면서 “농협 측은 이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한림 농협 측은 노조 측의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차성준 한림농협 조합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고소를 한 당사자들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 자리에서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협박을 한적이 없다”며 “또 휴일근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노사협의회의 동의와 함께 (휴일대체근로 실시일) 24시간 이전에 근무 명령을 통보하도록 한

요건을 지키면 가능하다는 노동청 답변을 얻어 해당 조건을 지켜가며 실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시정 지시도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괴롭힘이 있었는지는 설문조사하고 방지 캠페인을 실시하라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차 조합장은 노동청의 시정 지시 내용 중에는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에 대한 휴일·야간근로시 동의를 얻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다는 기자의 질의에 “시정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제주도의회 ‘국제학교’ 관련 교육행정질문 교육감 “질적 관리 필요... 추가 어렵다”

“교육청 감독권도 강화해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추가 설립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89회 2차 정례회에서 도교육청을 상대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 환경도시위)은 “올해 제주 국제학교 학생 총원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타시도와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대학 진학도 세계 50위권 대학에 무더기로 합격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당초 목표인 국제학교 7곳 유치는 4곳에 그치고 있으며, 내년까지 목표한 인구 1만9864명, 주택 4660세대도 현재까지 인구는 49%, 주택은 78%에 머무는 상황”이라며 “계획된대로 학교가 들어서면 도내 소비액이 매년 7000억원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대정읍 주민조차도 추가 설립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영어교육도시를 처음 설계했을 때 수요치가 지금과 비교하면 부풀려졌다고 생각한다. 유학생 비율이 당시보다 75%나 줄었기 때문”이라며 “학생 총

원율도 초등학교에만 집중돼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8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국제학교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본다. 좋은 학교가 있으면 자연히 사람이 몰려 발전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남아있는 3개의 국제학교 부지도 공공도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국제학교 지도·감독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연히 미쳐야 하는 도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이 법적 관계 때문에 국제학교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 제주도를 상대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좌절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도의회에 요청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에이씨에스제주가 신청한 싱가포르 앵글로-차이니스 스쿨(ACS)제주 국제학교 설립계획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유는 설립 자격, 설립 목적,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확보 및 학생 모집계획, 학교설립 경비조달계획, 개교연도로부터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대정지역 모든학교 원격수업 전환

“국제학교 재학생 1명 코로나19 확진 영향”

제주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대정지역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국제학교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대정을 관내 모든 학교의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19일 밤 제주도 방역 당국 등과 긴급 대책 회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23일까지 가파초(병설유치원 포함)를 제외한 대정읍 관내 모든 학교(유4, 초4 중2, 고2)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또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교직원들은 정상


출근한다.

이 밖에 도교육청은 도내 4개 국제학교에 2주간 원격수업을 권고했다. 이어 대정을 관내 학원에 대해서도 휴원 권고 및 철저한 방역을 요청했고, 다중 이용 시설(PC방·노래방 등) 출입 금지도 권고했다. 송은범기자



새로운 희망 일자리 여행

제주관광인 경력이음 플러스 사업



제주관광인 경력이음센터

제주상공회의소 Jeju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노동부** 제주지역인재개발위원회

제주관광인 경력이음 플러스 직무체험 교육생 모집

- 내용 관광크리에이터 직무체험 교육을 통해 다양한 기기와 기법을 활용해 보다 풍부한 관광 콘텐츠 제공 가능
- 주관 제주상공회의소, 노사발전재단 제주장년일자리희망센터
- 교육개요
 - 교육대상: 30세 이상 이직 · 전직 희망자 및 퇴직자
 - 교육장소: 제주관광인 경력이음센터 교육장 (서귀포고등학교 옆) 서귀포시 중앙로 146 스키아빌딩 4F
 - 참여인원: 정원 15명 *선착순 모집
 - 모집기간: 교육내용 및 일정 참조
 - 신청방법: 제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s://jejucci.korcham.net) [공지사항]에서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E-mail azunaakoma@nate.com
 - Tel 070-8990-4838 (평일 09:00~18:00) *전화 사전 예약 가능

- 교육혜택: 교육비 무료, 실업급여 구직활동 1회 인정, 중식 제공
- 교육내용 및 일정

	제 1 회	제 2 회
프로그램명	관광크리에이터 직무체험과정	관광크리에이터 직무체험과정
일시	11월 26일(목) ~ 27일(금) 10:00~17:00 (1시간 점심)	12월 08일(화) ~ 09일(수) 10:00~17:00 (1시간 점심)
모집기간	11월 18일(수)~11월 25일(수)	
구성 및 내용	1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경력설계 • 직업흥미탐색 및 강점지능 파악하기 • 경력설계 자기진단과 목표설정 	12/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경력설계 • 직업흥미탐색 및 강점지능 파악하기 • 경력설계 자기진단과 목표설정
	1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에이터 직무체험 • 유튜브 채널 분석 및 운영 전략 • 팟캐터 체크리스트 작성방법 • 유튜브 광고 사례 및 전략 	12/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에이터 직무체험 • 유튜브 채널 분석 및 운영 전략 • 팟캐터 체크리스트 작성방법 • 유튜브 광고 사례 및 전략

- 교육혜택: 교육비 무료, 실업급여 구직활동 1회 인정, 중식 제공
- 교육내용 및 일정